국 어

수험 번호:(성명:()

제1차 시험 2교시 전공A 14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연설의 설득 전략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다. 괄호 안의
 ⑤, ⑥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청중을 설득할 때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1968년에 케네디(R. Kennedy)가 미국의 흑인 거주 지역에서 했던 연설은 이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당시 케네디가 연설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인권 운동가로서 흑인의 큰 지도자였던 킹(M. King) 목사가 백인이 쏜 총에 죽었어요.

케네디는 이런 상황에 처한 혹인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해야만 했어요 케네디는 연설에 앞서 이 소식을 혹인 청중에게 알렸고, 당연히 혹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죠. 케네디는 킹 목사가 정의를 위해 헌신하였고, 그 정의를 실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이어 갔어요.

"이런 억울한 사태에 대해 촉인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백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들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제가 이 한마디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 가족도 안상을 당해습니다 그리고 안상범은 백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킹 목사가 죽은 후 대부분의 흑인 거주 지역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지만 이 지역은 이 연설 덕분에 큰 폭동이 없었대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설득 전략 및 가지를 배웠지요? 관심 끌기 전략, 일화 제시하기 전략 등……. 그럼, 케네디가 이 부분에서 사용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음, 자신의 아픈 사연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맞아요. (①) 전략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강조했던 효과적인 설득의 요인들 가운데 (⑥)에 호소를한 거예요.

 박 교사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전단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료 1>은 박 교사가 사용한 평가지의 일부이고, <자료 2>는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괄호 안의 ①,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자료 1>-읽기 능력 진단 평가 1학년 <u>3</u> 반 이름: <u>김영희</u> ※ [1~3] 제시된 문단에서 (1)~(3)의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표를 하시오. 1. (1)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을 익충. 해를 주는 곤충을 해충이라 한다. (2) 하지 (1) 낮음 보통 높음 만 곤충에 익충, 해충의 구별이 원래부터 (2) Y 낮음 보통 높음 있지는 않다. (3) 그들이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지 해를 주는지에 따라 붙인 말이기 때문이다. (1) 배추흰나비는 배추를 갉아 먹어 (1) 낮음 보통 높음 피해를 주지만 꽃가루를 날라 줘 도움을 준다. (2) 벼메뚜기는 벼 잎을 갉아 먹어 (2) Y 낮음 보통 높음 해가 되지만 식용으로 파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된다. (3) 이와 같이 곤충 자체에는 (3) 낮음 보통 높음 익층, 해충의 구별이 있지 않다. (1) 곤충은 발생 단계에 따라 이익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 (2) 배추 (1) 낮음 보통 높음 회나비는 애범레 시기에는 배추름 갉아

※ [4~6]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먹어 피해를 주지만 어른벌레가 되면 꽃

가루를 날라 줘 도움을 준다. (3) 따라서

곤충 자체에는 익충, 해충의 구별이 있지

olth

V

낮음 보통 높음

(3) 낮음 보통 높음

(2)

o 대상: 1학년 <u>3</u> 반 <u>김영희</u> (2015년 〇〇월 〇〇일) 문항 번호 평가 방법 진단 결과 지도 방향 (L))이/가 무엇 예를 들어 개념을 이 해시킴. 인지 잘 모름. 무조건 앞에 있는 (C)은/는 문단 1~3 (1) 것을 '높음'으로 하 내의 위치로 결정되 는 경향이 있음. 는 것이 아님을 강조 4~6 빈칸 메우기

- 2. 다음은 "규칙에 맞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진행한 회의의 의안 심의 과정이다. 의장의 <u>잘못</u> 2가지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의 장: '체험 여행을 남원으로 가자.'라는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는 이 의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 총 무: 이번 6월 15일 여행의 체험 주제는 '고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임원 회의에서는 여행지로 몇 곳을 검토한 끝에 『춘향전』의 배경인 남원을 선정하여, 이 의안을 학급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남원에서 12일부터 20일까지 '춘향제'가 열려『춘향전』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의 장: 이제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질문 해 주세요.
 - 회원 1: (발언권을 얻어) 임원 회의에서 어디 어디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 총 무: 남원을 비롯해서 안동, 강릉, 그리고 몇 곳을 검토했습 니다.
 - 회원 2: (발언권을 얻어) 남원에서 『춘향전』 체험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요?
 - 총 무: 남원은 추어탕이 유명해서 지역 음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회원 3: (발언권을 얻어) 저는 남원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작년에 전주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지역 으로 가면 좋겠어요.
 - 의 장: 미안하지만,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니 그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 4: (발언권을 얻어) 저는 남원을 좋아하지만 추어탕은 싫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요. 다른 음식 체험이 가능합니까?
 - 의 장: 단체가 하는 체험이니까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음…, 궁금한 것이 더 없는 것 같네요. 질의 응답을 종결해도 좋습니까?

회원들: 좋습니다.

- 의 장: 그럼, 이제부터 이 의안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총무는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총 무: 현재 27명 모두가 참석해 있으므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 의 장: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이 의안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13명입니다. 이제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11명입니다. 그럼, 기권이 3명이네요. 그래서 '체험 여행을 남원으로 가자.'라는 안은 찬성 13표, 반대 11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성 방법>-

- 의장이 의안 심의 과정에서 누락한 단계 1가지를 쓸 것.
- 의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잘못한 점 1가지를 이유와 함께 서술할 것.

3. (가)는 김 교사가 작성한 교단 일기이고, (나)는 유 교사, (다)는 최 교사가 사용했던 쓰기 평가 도구이다. 세 교사가 선택한 쓰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김 교사의 교단 일기

지난 2주 동안 "쟁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 설득적인 글을 쓸수 있다."라는 목표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기분이 참 좋았어.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지만 여전히 숙달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래, 이번 쓰기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지도 내용 중에서 무엇을 숙달했고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평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해야겠어.

이번 평가에서는 유 선생님을 따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써보라고 평가 도구를 주기도 했고, 사실 편리하기도 한데……,아니야, 그래도 ①이 도구를 활용한 유 선생님의 평가 방법은 쓰기 능력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① 직접 쓰게 하고 그 글을 평가하는 것이 좋을 듯해. 나 혼자 평가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서두르자. 마침 최 선생님께서도 먼저 쓰셨던 평가 도구를 활용해 보라고 주셨잖아. 그럼, 이제 한번 사용해 보자.

(나) 유 교사의 평가 도구

※ [1~20] 다음 물음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1.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적절한 것은? ① 합리적 근거 ····· ⑤ 필자의 취미

… (중략) …

20. '전문가의 견해'는 어떤 근거 유형에 속하는가? ① 사실 논거 ······ ⑤ 의견 논거

(다) 최 교사의 평가 도구

- 쓰기 과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 채점 기준표

등급	특성
የ 수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설득력이 높음.
보통	•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다소 부족하여 설득력이 보통임.
부족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설득력이 낮음.

- ⓒ에 비추어 볼 때 쓰기 능력 평가로서 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할 것.
- (다)를 단서로 하여 최 교사가 학생 글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쓸 것.
- 최 교사의 학생 글 평가 방법이 어떤 점에서 김 교사에게 적절하지 않은지를 (가)에 나타난 김 교사의 평가 의도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할 것.

국 어

수험 번호:(성명:()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4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1. 다음은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를 주제로 한 수업 장면이다. 팔호 안의 ①, ②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대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화면에 준비한 학생의 대화를 같이 봅시다.

(종례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며)

성현: 너 내일 뭐 해? 집도 가까운데 농구할래?

인우: 나 약속이 있어. 성형: 약속? 무슨 약속?

인우: 음, 누나랑 매형이 집에 와서 가족끼리 밥 먹기로 했어.

성현: 결혼한 누나가 있었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 왜

말 안 했어?

인우: 그걸 굳이 말해야 돼? 너랑 만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성현: 난 우리 집 사정이며 내 고민까지 너한테 다 털어 놓았는데…. 일주일이면 친해지기에 충분한 시간 [A] 아냐?

인우: 충분하다고? 사실 나는 아직도 많이 부담스러워. -

둘의 대화를 보니, 성현이와 인우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사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A]를 보니, 선생님은 이 두 친구가 계속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들의 대답)

여러분이 말했듯이, 성현이는 인우에게 집안 사정과 자신의 고민까지 서슴없이 밝힌 데 비해, 인우는 성현이가 개인 사정과 고민을 말해 준 것에 대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합니다.

대인 관계 의사소통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①)(으)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인 관계 초기에 서로를 알아 가기위해 상호 작용을 합니다. 주로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적 자아를 드러내다가 관계가 발전할수록 점진적으로 개인의 감정, 가치관, 내재된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자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다시 이 대화를 살펴볼까요? 성현이와 인우는 자아에 대한 정보의 양과 수준 그리고 그 정보를 드러내는 (①)이/가 상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2. 다음은 읽기 텍스트 선정을 위한 대화이다. 괄호 안의 ③, ⓒ에 해당하는 땀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김 교사: 선생님, 제가 이번 학기 방과 후 수업에서 읽기 부진 학생 2명의 지도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 들에게 적합한 읽기 텍스트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 박 교사: 저도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읽기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늘 고민거리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수억하실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진작하세요?
 - 김 교사: 저의 판단으로는 대략 또래 학생들보다 2년 정도 위기 발달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 보니 어휘 수준, 문장 복잡도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이독성을 계산해서 특정 학년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 방법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 박 교사: 이독성 공식에만 의존하면 (①)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 김 교사: 아, 독자의 배경 지식과 같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 박 교사: 독자의 배경 지식도 중요한 요인이죠. 독자 요인에 서는 그런 인지적인 특성 이외에 흥미나 읽기 효능감 같은 정의적인 특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상황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독서 환경은 어떠한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임지요
 - 김 교사: 독서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독서 환경 중에서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대화 빈도, 부모의 독서 행위, 가정 내 읽을거리의 양과 질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9. 다음은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수업 자료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유 2가지를 [A]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4점]

면대면 대화	온라인 대화
• 음성 언어를 사용함.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처럼 사용함.
• 동일한 시 • 공간에 있어야 함.	• 동일한 시·공간에 있지 않 아도 됨.
• 준언어 · 비언어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	 준언어ㆍ비언어적 메시지를 이모티콘 등의 기호로 간접 전달하지만 제한적임.

(4)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언어를 통로로 하여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의도대로 청자에게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인간은 메시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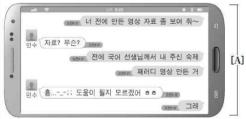
도연: 너 어제는 내가 부탁한 영상 자료를 보여 준다더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민수: 내가 언제 너한테 보여 준다고 말했어?

도연: 나랑 어제 온라인 대화할 때 보여 준다고 했잖아.

민수: 언제 그랬어? 보여 주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도연: 참 나, 어제 네가 보낸 거 확인시켜 줄까?



도연: 자, 봐. 이게 보여 주겠다는 뜻 아냐?

민수: 아니, 그건 자료를 주기 곤란하다는 뜻으로 보낸 건데.

10. (가)는 김 교사가 채택한 교과서의 쓰기 단원이고, (나)는 김 교사가 이를 재구성한 것이다. (나)의 재구성 방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학습 목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며 글을 쓸 수 있다.

(가) 재구성 전

단원 전개	소단원 1	소단원 2	소단원 3
학습 목표	목적, 독자에 따른 쓰기 과정 점검 방법을 이해한다.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문을 쓸 수 있다.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논설문을 쓸 수 있다.
학습 활동	1. 목적에 따른 점검 방법 이해하기 2. 독자에 따른 점검 방법 이해하기	1. 계획하기	
	+	2. 생성·조직하기	
	3. 목적에 따른 점검 방법 적용하기		(생략)
	+	3. 작성하기	
	4. 독자에 따른 점검 방법 적용하기	4. 고쳐 쓰기	

(나) 재구성 후

단원 전개	소단원 1	소단원 2		소단원 3
	목적, 독자에 따른 쓰기 과정 점검 방법을 이해한다.	점검 방법을 활용 설명문을 쓸 수 있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논설문을 쓸 수 있다.
학습 활동	1. A 필자의 점검 활동 (프로토콜) 분석하기	1. 계획하기		
		↓ 2. 생성·조직하기		
	2. B 필자의 점검 활동 (프로토콜) 분석하기	↓↑ :	조 ★ 정 → 하	(생략)
		3. 작성하기	7	
	3. 목적에 따른 점검 방법 정리하기	↓ ↑		
	4. 독자에 따른 점검 방법 정리하기	4. 고쳐 쓰기		

- (가)의 '소단원1' 학습 활동과 (나)의 '소단원1' 학습 활동의 차이를, 학습 활동의 전개 순서와 관련지어 서술할 것.
- 김 교사가 (가)의 '소단원 2' 학습 활동을 (나)의 '소단원 2' 학습 활동과 같이 재구성하면서 적용한 쓰기 과정의 원리를 쓰고, 그 원리를 설명할 것.

국 아

수험 번호:(성명:()

제1차 시험 3교시 전공B 8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1. 다음은 "입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수행한 학생들의 모의 협상이다. 교사의 지도 내용을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 학생 1(구청 대표): 지난번 협상에서 지역의 상생 반전을 위해 학교 도서관 개방과 재학생들의 구립 체육 시설 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도서관 개방 방식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는 도서관의 모든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서 대출 권한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율학습실 이용 권한을 학생들과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 학생2(학교 대표): 도서 대출 권한은 학생들과 동일하게 부여 할 수 있지만 자율학습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학생 1(구청 대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편의 시설로 도서관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에서 자유롭게 책을 빌리기도 하고, 조용히 책을 읽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 대학 도서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니,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자율학습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던데 자율학습실을 왜 개방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학생 2(학교 대표): 자율학습실은 학생들이 24시간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공간입니다. 24시간 이용하는 공간을 구민들에게 개방하게 되면 도난 사고가 우려되어서 저희로서는 그 안을 수용하기 어려우 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1(구청 대표): 애초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 -하겠다고 결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학이라고 그러셨지요. 막나요?
 - 학생 2(학교 대표): 네, 그렇습니다.
 - 학생 1(구청 대표): 그렇다면 그것이 학교 측에서 도서관을 [A] 개방하는 목적 중 하나일 텐데요, 만약 주민들이 학교가 자율학습실을 개방하지 않아서 책 읽을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한다면 도리어 학교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학생2(학교 대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난 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데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자율학습실 개방은 곤란합니다.
- 학생 1(구청 대표): 지역 내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보다 도난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말씀 [B] 이신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발 양보할 테니 시험 기간을 피해서 자율학습실을 제한적으로 개방해 주시면 어떨까요?
- 학생2(학교 대표):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학생1(구청 대표): 그렇다면 협상을 더 진행하기 어렵겠네요.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보 기>

모두가 이익을 얻는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왜 다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서로가 원하는 이익이 무엇이나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거나,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입장을 좁히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파악하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보의 크기, 범위, 시기 등을 조절하여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상대에게도 가치 있는 부분을 찾아 맞교환할 수 있다. 한편 협상에서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언급하여 설득하기도 한다.

--<작성 방법>

- '학생 l'이 [A]에서 사용한 협상 방법을 쓸 것.
- '학생 I'이 [B]에서 시도한 협상 방법을 쓰고,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그 협상 방법과 관련하여 서술할 것.

국 어

수험 번호 : (성 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A 14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1. 다음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 협의회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⑦~⑪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김 교사: 발표 수업에서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 이 교사: 학생들의 말하기 불안과 발표 수행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더니 <표>와 같이 학생들을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더군요.

<표> 말하기 불안과 발표 수행 수준에 따른 학생 유형

발표 수행 수준 말하기 불안 수준	미흡	우수
낮음	A 유형	B유형
높음	C 유형	D유형

- 박 교사: 흥미롭네요, 각 유형별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이 교사: 네, (①) 유형의 경우는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현재의 발표 수행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①)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나 화법 기능(技能)이 부족하 므로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⑥) 유형의 경우,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거나 말하기 불안 감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 적이겠죠 (②)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접근 방법을 다면적으로 활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교사: C 유형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군요. 이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을 추천해 주시 겠어요?

이 교사: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하기 불안 감정 자체를 완화하는 훈련도 도움이 되는데,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한 가지는 (⑨)입니다. 심부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게 하고, 특정한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긴장의 강도가 높은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불안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 상황 노출법'이 있습니다.

)

… (하략) …

 박 교사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하였다. 괄호 안의 ⑤, ⑥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되,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2점]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나름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오늘날 한국은 개인주의 시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홀로 제 운명을 감당하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돈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쏟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 광동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보장 제도가 점차 탄탄해지고 있으니 미래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공동 연대가 꼭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삶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개체라는 생물학적 단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가족은 사회적 · 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실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받는다. 지역 공동체, 국가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혈족만큼 기대할 수 없다. 개인주의 시대에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공동체는 가족밖에 없다.

지욱은 초조했다. 그럭저럭 사오 년 가까이나 지탱해 온 호구지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나가는 판이었다. 오접 통화극으로 인한 그 혹심한 자기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뭉그적뭉그적 며칠이 못 가 다시 원고지 앞으로 이끌려 가 앉아야 했을 만큼 지겨운 요즘의 생활이었다.

하지만 지욱은 이제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문오 씨를 단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최상윤 선생(충청부도 어느 산간 벽지에서 10만 평의 황무지 야산을 개간. 정과 꿀물이 흐르는 옥토로 일궈 냈다는 그 의지의 사나이 말이다)에게나 기대를 걸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최상윤 선생——그 자기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가꿔 얻은 감자만을 먹고 산다는 고집스런 사내에게서라면 그의 회고록의 대필자로서나마 어떤 구체적인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피문오 씨의 경우에서처럼 공허한 말의 유회에는 심신을 덜 시달려도 될 것 같았다. 적어도 그 최상윤 선생에 게만은 그에게 봉사시킬 말과, 그 말들을 거짓 없이 부릴 수 있는 소박하고도 떳떳한 삶의 실체가 여물어 가고 있을 것 같았다.

최상윤 선생을 생각하자 지욱은 마침내 피문오 씨의 일을 단념할 용기가 생겼다.

그는 자서전 원고지를 걷어치웠다. 그리고 기왕 결단이 선 김에 그의 일을 하지 않게 된 데 대한 작자의 양해도 구할 겸해서 솔직한 해명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4)

학생: 선생님, 이 작품에서 "말들은 정처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요.

교사: 주인공은 자신이 쓴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대상의 본질 이나 의미를 왜곡하거나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①)(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학생: 그래서 주인공이 피문오 씨가 의뢰한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최상윤 씨의 회고록 대필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어 보려고 하는 거죠?

교사: 주인공은 최상윤 씨가 힘겨운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므로 그에게서 (⑥)을/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9. 다음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학생 토론의 일부이다. 찬성 측 (1)의 '입론'과 반대 측 (2)의 '반대 신문'에 대한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4점]

찬성 측 (1):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익힐 권리'란 온라인에서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함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 준비생인 김 모 씨는 과거에 한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지우고 싶지만,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 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 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잊힐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확대될 것입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나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잊힐 권리'의 법제화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 측 (2):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①'일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 (1): 물론입니다. '잇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원치 않는 계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물을 삭제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 훼손이나 취업 기회 박탈 등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2): 이미 관련 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화가 필요 없겠죠?

찬성 측 (1): 그렇습니다.

반대 측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에 '정보의 삭제 요청'에 관한 사항이 구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찬성 측 (1):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 축 (2): ⑤저는 '잊힐 권리'보다 '표현할 권리'가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잊힐 권리'가 '표현할 권리'와 충돌 한다면 어떤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1):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 (하략) …

---<작성 방법>-

-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의 '입론'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 으로는 '문제 쟁점, 해결 쟁점, 이익 쟁점'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찬성 측 입론에 누락된 쟁점 1가지를 밝히고, 그 쟁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서술할 것.
- ③과 이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서술 할 것.

8. 김 교사는 요약하기 규칙을 적용하여 요약문을 만들고 이를 발표하기에 활용하는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보기 1>은 김 교사가 마련한 학습지이고, <보기 2>는 한 학생이 제출한 학습 지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수업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시오. [10점]

< 보기 1>-

2학년 __반 _

※ 다음 글을 읽고 요약하기 활동을 해 보자.

화폐와 경제생활

[] 화폐는 재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화폐의 출현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가치의 축적'이 라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초래했다. 즉,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치를 축적하는 것이 쉬워진 것이다.

② 소, 돼지, 양이나 물고기, 조개 같은 것들은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곧 부패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한 것을 아무리 많이 획득하여도 오랫동안 축적해 둘 수 없었다. 또 비교적 쉽게 부패하지 않는 쌀, 보리, 밀, 수수와 같은 것도 축적해 두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리고 공간이 아무리 넓고 커도 축적할 수 있는 총량에 한계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여 많이 축적해 둔다고 해도 그 소유자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3 수렵 채취의 시대에는 그때그때 획득한 재화를 2~3일

<학습 활동>

1.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구분	요약문	비고
1		50자 내외
2		150차 내외
3		150자 내외
4		150차 내외
5		50자 내외

2. 1을 바탕으로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구분	요약문	비고
처음 1		50자 내외
중간 234		300차 내외
끝 5		50자 내외

3. 2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50차 내외)

4. 1~3에서 요약한 내용을 활용하여 <말하기 상황>에 알맞 게 발표하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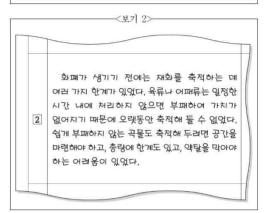
--<말하기 상황>-

○ 화제: 화폐와 경제생활

○ 목적: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 청중: 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배경 지식이 부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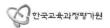
학급 친구들



---<작성 방법>-

- 서론과 결론은 생략하고, 본론은 세 문단으로 구성하여
 4 거
- 본론의 1문단은 김 교사가 요약하기 활동을 학습 활동 1~3과 같이 구성한 의도를 글의 구성단위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
- 본론의 2문단은 요약 규칙 중 '일반화(대치) 규칙'과 '재구성 규칙'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보기 2>의 요약문에서 두 규칙이 적용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쓸 것.
- 본론의 3문단은 학습 활동 4에서 청중 특성을 고려한 '도입 부'의 내용 구성에 대한 지도 내용을 2가지 쓸 것.

<수고하셨습니다.>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제1차 시험 3교시 전공B 8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1. (가)는 '상대를 배려하며 말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대화 자료이고, (나)는 차시별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대화상의 문제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가) 대화 자료

(국어 수업 시간에 수행 평가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후를 중심으로 모둠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현회: (속상한 표정으로) 이제 우리 어떡해. 수행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데.
- 태수: (정후에게 거친 말투로) 야! 한심하다, 한심해. 대체 왜 그래? 멍청하게 중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떡해?
- 정후: (멋쩍은 표정으로) 아이, 내용이 연결 안 되잖아. (작은 목소리로) 어쩌라고…….
- 민우: 남자가 여자처럼 앵앵대기는.
- 유리: 잘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께 다시 발표한다고 말해 볼까? [A]
- 현희: 우리 기분도 그런데, 같이 공원이나 갈까?
 - … (하략) …
- (나) 차시별 수업 계획

사사	학습 내용			
1차시	 ○ 동기 유발: 대화 예절 관련 동영상 시청 ○ 말하기의 문제점 파악 1 - ③ 공손성의 원리(정중어법) - ⑥ 체면 유지 원리(예의 이론) ○ 말하기의 문제점 파악 2 - ⑥ 협력의 원리 ○ 말하기의 영향력 이해 			
2차시	○ 1차시의 말하기 문제점 조정 및 해결 방법 탐색 ○ 배려하는 말하기 -'나-전달법', '우리-전달법' (하략)			

- -<작성 방법>-
- ③을 활용하여 (가)의 '태수'의 말하기 문제점을, ⑥을 활용하여 (가)의 '민우'의 말하기 문제점을 각각 서술할 것.
- ⓒ을 바탕으로 [A]에서 '현희'가 어긴 격률을 쓰고, 이를 통해 현희가 의도한 대화 함축의 의미를 추론하여 서술할 것.

2. 다음은 연결 어미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결합에 관한 탐구 학습의 내용이다. '자료 분석'의 ⑤을 활용하여 ⑤, ⑥을 각각 서술하시오. [4점]

문제 제기	연결 어미 '-지만'과 달리, 연결 어미 '-고서', '-면서', '-게' 앞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자료 수집	교에는 과거 시에 한어할 어린 "었는"에 왜 나타나서 않을까? (1) 가. 내가 지금은 바쁘지만 그때는 한가했다. 나. 내가 그때는 바빴지만 지금은 한가하다. (2) 가. 지수는 밥을 먹고서 확교에 갔다. 나. "지수는 밥을 먹었고서 확교에 갔다. (3) 가.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나. "나는 음악을 들었으면서 책을 읽었다. 나. "나는 음악을 들었으면서 책을 읽었다. 나. "바람이 잘 통해게 창문을 열어 두었다. 나. "바람이 잘 통해게 창문을 열어 두었다. (*는 비문 표서임.)
자료 분석	※ '-었-'이 나타나는 연결 어미 '-지만'의 의미 (1)의 연결 어미 '-지만'은 대조를 나타내므로 앞문장의 사건과 뒷문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대조됨을 의미한다. ※ '-었-'이 나타나지 않는 연결 어미 '-고서', '-면서', '-게'의 의미 (2) (3)의 연결 어미 '-면서'는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 므로 앞문장의 사건과 뒷문장의 사건이 동시에 ① 일어남을 의미한다.
결론	연결 어미 '-지만'과 달리, 연결 어미 '-고서', '-면서', '-게'는 앞문장의 사건과 뒷문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나타나지 않는다.

11. 다음은 심포지엄의 일부이다. 심포지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법과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숙하시오 [4점]

사회자: 지금부터 '인간 태도 변화의 원인 탐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 정○○ 교수님께서 '행동 학습에 의한 태도 변화'라는 제목 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 교수: (발표한다.)

사회자: 지금까지 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인간의 태도 변화는 행동 학습에 의한 변화로 연합에 의한 변화, 강화에 의한 변화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태도연구소 강○○ 박사님께서 '설득에 의한 태도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 박사: (발표한다.)

사회자: (강○○ 박사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세 번째 발표자 황○○ 교수를 소개한다.)

… (중략) …

사회자: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 ·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청중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사회자가 지명 하면 1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발표자께서는 3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중 1이 손을 든다. 사회자가 지명한다.)

청중 1: 황○○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태도 변화 와 관련한 인지 부조화 이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① 인지 부조화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그 사례들이 오히려 교수님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황○○ 교수: ⑤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인지 부조화 이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잘못 판단하면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태도가 변화하는 사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한다.)

… (중략) …

사회자: 이제 심포지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 까지 이루어진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 태도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강○○ 박사님께서 설득에 의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황○○ 교수님께서 인지 부조화 이론과 관련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A]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방법>-

○ ⑤을 고려할 때 ①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듣기 방법을 3가지 서술할 것.
 ○ [A]에서 사회자의 역할로서 미진한 점을 1가지 서술할 것.

12. 다음은 국어 받침의 발음 변화를 학습하기 위한 수업의 일부 이다. 학생의 질문에 따른 교사의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사: 15세기에는 받침 ㄷ과 ㅅ의 발음이 지금과 같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견해와, 지금과 달리 받침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15세기에 받침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그러면 15세기 이후에 받침 ㄷ과 ㅅ의 발음이 받침 ㄷ의 발음으로 같아지는 변화가 일어났나요?

교사: 네, 맞아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살펴볼까요?

<자료>

П	(7)		<u> 잇</u> └니[有], <u>낫</u> 나치[箇箇], <u>믯</u> 믯호다[滑]		
	(나)	15세기 이후	인노니[有], 난나치[箇箇], 민믯호다[滑]	인누니[有], 난나치[箇箇],	

- (가), (나)의 구체적인 음운 현상의 발생 여부를 비교하여 서술함 것.
- (가), (나)의 음운 현상 발생 여부의 이유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국 아

수험 번호:(성명:()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가)는 발표 지도에 대한 교사 간의 대화이고, (나)는 준비된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괄호 안의 ③,
 ⑤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71-)

- 교사 A: 주체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를 하는 수행 과세를 준 후 발표를 시켰더니, 학생이 청중을 보지도 않고 발표문만 보며 그대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학생의 발표 능력 신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 교사 B: 미리 작성한 발표문이나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도 문제 지만, 저는 그것을 암기해서 청중 반응과 상관없이 줄줄 읇어대는 식의 수행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사 C: 그러면 학생에게 (①)을/를 작성하게 한 후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며 연습을 하게 해 보세요. 이것에 기초해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같은 내용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게 되어, 실전에서도 발표문을 읽지 않고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

구어 의사소통에는 사전 준비 없이 하는 '즉홍적 말하기'와 말할 내용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준비된 말하기'가 있다.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할 때 발표문을 보고 그대로 읽어서는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어렵다.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넘어 (⑥)을/를 통해 역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청중의 반응에 따라 말할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 가며 역동적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무시한 채 준비된 발표문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다르다.

 <보기>는 다음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③, ⑤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음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시속 오십 몇 킬로라는 특급 차창 밖에는, 다리쉽을 할 만한 정거장도 역시 흘러갈 뿐이었다. 산, 등, 강, 작은 동리, 전선주, 꽤 길게 평행한 신작로의 행인과 소와 말.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푼수로는, 우리가 지나친, 공간과 시간 저편 뒤에 가로막힌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것들은, 캔버스 위의 한 터치 또 한 터치의 오일같이 거기 부딪혀서 농후한 한 푹 그림이 될 것이나 아닐까? 고나는 그러한 망상의 그림을 눈앞에 그리며 흘러갔다. 간혹 맞은편플랫폼에, 부풀 듯이 사람을 가득 실은 열차가 서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시하고 결릿결핏 지나치고 마는 이 창 밖의 그것들은, 비질 자국 새로운 플랫폼이나 정연히 빛나는 궤도나 다 흐트러진 쾌허 같고, 방금 브레이크되고 남은 관성과 새 정력으로 피스톤이들먹거리는 차체도 쾌물 같고, 그러한 차창에 빈틈없이 나붙은 얼굴까지도 어중이떠중이 뭉친 조난자같이 보이는 것이고, 그 역시 내가 지나친 공간 시간 저편 뒤에 가로막힌 캔버스위에 한 터치로 붙어 버릴 것같이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은 무슨 대단하다거나 신기로운 관찰은 물론 아니요, 멀리 또는 오래 고향을 떠나는 길도 아니라 슬픈 착각이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영전이 되었거나, 무슨 사업열에 들떴거나 어떤 희망에 팽창하여 호기와 우월감으로 모든 것을 연민시하려 드는 것도 아니다. 정말 그도 저도 될 턱이 없는 내 위인이요 처지의 생각이라 창연하다기에는 너무 실없고, 그렇다고 그리 유쾌하달 것도 없는 이런 망상을 무엇이라 명목을 지을 수 없어, 혹시, 스피드가 간질여 주는 스릴이라는 것인가고 생각하면 그럴듯도 한 것이다.

- 최명익, 「심문」-

- (보フ)>-

속도는 모더니티의 핵심이다. 이 변화의 속도는 익숙하던 것을 불시에 먼 과거의 것으로 만든다. 최명익은 이러한 속도의 작용에 따른 당대의 정황을 인상적으로 드러낸다. 가령「심문」에서 (①)은/는 돌이킬 수 없는 속도의 객관적 상관물로 설정된다. 일말의 주저나 두려움 없이 질주하는 속도는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저편으로 흘러가게 하여 낡은 것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편승한 사람들조차 상대적 속도에 뒤처진 채 (①)와/과 같은 처지에 내몰린다면 어떻게 될까? 작가는 이러한 의문 속에 새로운 문명의 질주가 종내 과국에 이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드러낼 채비를 한다.

… (중략) …

남폿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기집에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구 ……."

"어쩌믄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변변히 못 써 봤다드군. 지금 같애서는 윤초시네두 대가 끊긴 셈이지. ……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어.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어?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루 입혀서 묻어 달라구 ……"

- 황순원, '소나기

3. (가)는 강연의 결론 부분이고, (나)는 연설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나)를 참고하여 (가)에 적용된 연설의 방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7)

젊은이가 젊은이다운 건, 이 시대의 진리를 추구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탐닉할 때 진면목을 보여 줍니다. 현실 사회의 부조리, 부쾌, 부정, 무질서 등 모든 약습을 일소하고 쇄신 하려면 아니 쇄신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전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청춘을 누리는 젊음에 있습니다.

… (중략) …

우리에겐 땅도, 돈도, 자연도 넉넉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의지할 근본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질'입니다. 청춘에 사는 '젊은이의 질'에 있습니다. 사람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략) ...

우리의 심장인, 우리의 장래를 떠맡은 청춘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여러분, 여성을 사랑해야 되겠고, 남자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민족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하십시오. 운명 공동체인 내 민족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으리란 생각을 한다면, 나 하나 잘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내 젊을 때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을, 다 늙어 죽어 가며 이를 깨달아 여러분에게 전해 주니 위대한 민족 사회를 위해 살아 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당부를 하고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③ 여러분! 청춘 중의 위대한 청춘, 건실한 청춘, 협동심을 갖춘 청춘, 절도 있는 청춘, 부지런한 청춘, 함께 살며 번영하길 원하는 청춘, 세계에서 제일가는 청춘 중의 청춘이 돼라!

- 이태영 변호사의 '언어교양대학' 강연 중(1974) -

(1)

청중이 듣고 이해하기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한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한다. 급작스럽게 논의가 바뀌면 사고 연결에 무리가 생기므로 청자가 내용의 논리적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앞의 내용 정리하기, 뒤의 내용 안내하기 등의 기능을 가진 내용 연결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략) …

연설의 결론은 '종료 신호', '요점 재강조', '결언'으로 구성된다. 결언은 연설의 결론 중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거나 지나간 요점을 재강조할 필요는 없고, 청중 에게 연설 전체에서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도록 결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결언에서는 유명한 말, 고사성어, 문학 작품, 유머 등을 인용하기, 연설의 내용이 가지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기, 청중을 끌어들이면서 연설을 맺기 등으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한다.

- (나)의 내용 연결 표현 중 쌍방향 의사소통 효과를 유발하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가)의 ③에 사용된 결언 방법을 쓰고, 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